

최찬숙



《큐빗 투 아담》(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2021) 설치 전경.



《경계에서의 신호》(남서울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2021)에서 <잊혀나> 설치 전경.

최찬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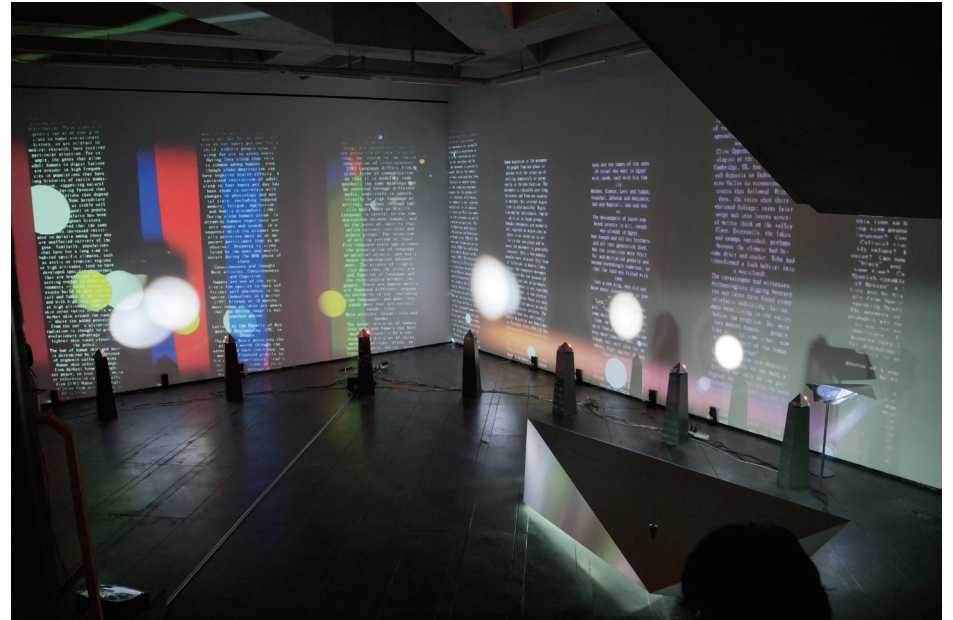
이동, 밀려난 몸 등을 주제로 공감각적 시각언어를 구축해 온 최찬숙은 아티스틱 리서치(artistic research)를 기반으로 한 서사학(narratology)적 실험을 전시, 퍼포먼스, 공연, 등의 다학제적 방법론을 통해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훔볼트 포럼 베를린(2017), 아트선재센터 프로젝트스페이스 (2017), 타이베이 디지털아트센터(2020) 등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으며, 서울시립미술관 신진 작가지원 프로그램(2017), 현대자동차 VH AWARD(2019), 독일연방 Kunstfond 재단 시각예술지원상 (2021) 등을 수상하였다. 다학제적 방법론을 통해 전시, 렉처, 공연 및 출판 등 장르를 넘나드는 작업들을 서울 국립극장 국가브랜드 공연, 아르스일렉트로니카, 볼스부어그 미술관, 베를린상공회의소 등에서 펼쳐왔으며,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과 SBS가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www.chansookchoi.com
chansookchoi@googlemail.com

개인전

- 2021 《Qbit to Adam I, Adam》, 캉컨템포러리, 베를린, 독일
- 2020 《SUPERPOSITION》, 디지털아트센터, 타이베이, 대만
- 2020 《그들의 땅에서 빛들이 새고 있다》,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 서울, 대한민국
- 2017 《Re-move》, 아트선재센터, 서울, 대한민국
- 2017 《음양수화, Ground-Signal-Code-Notation》, 훔볼트포럼, 베를린
- 2016 《Re-move》, 그림미술관, 베를린, 독일
- 2015 《WE remember ME》, 마인블라우 프로젝트라움, 베를린, 독일
- 2015 《The Promised land》, 대안공간루프, 서울, 대한민국
- 2013 《90억가지 신의 이름》, 성곡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 2010 《Metamorphose》, 갤러리 쿤스트독, 서울, 대한민국

《The Promised Land》(대안공간루프, 서울, 대한민국, 2015) 설치 전경.



기획 조속현
편집 김나현
아카이빙 최소영
책임연구 조혜옥
연구 이수연
참여(수록순) 부찬용, 김지훈, 토미야마
이치로, 박소현, 우아름,
아멜리아 그름, 김정현, 조주리,
헤라 찬

번역 콜린 모엣, 서울리딩룸,
조혜수(일본어-한국어 번역)
영문 감수 사라 고다드
그래픽 디자인 신덕호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 조사-
연구-비평>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